

V. 연금재정 평가모델에 의한 시나리오 분석

1.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연금재정 적정성 평가모델인 가입연령방식, 도달연령 방식, 폐쇄형 종합보험료방식, 개방형 종합보험료방식, 일시납 적중방식 등의 모델을 적용, 1인당 부담보험료, 급부비용, 연령대별 보험료수준 등을 산출함으로써 개별기업의 특성에 부합한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모델 선택시의 시사점 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수를 고려하여 연금재정 적정성 평가모델을 분석하기 위해 대규모계약집단보다는 300인 이하의 소규모계약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하였다⁶⁶⁾.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특정기업의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분석을 위한 제가정은 대략 다음 <표 V-1>이 설정하였다.

<표 V-1> 분석대상 및 모델, 분석내용

	분석대상	분석모델	분석내용
내용	소규모집단체약	5개의 적정성모델	- 급부비용 및 부담보험료, 고연령시의 부담금 추정 등
특징	승급률 및 탈퇴율 미감안	가입, 도달, 일시납, 종합보험료 방식적용	- 모델별 차이비교

분석을 위한 제가정으로 ① 50세부터 54세까지 연령대별 근로자로 구성된 기업을 가정하였으며 ② 다음해부터 매년 50세인 근로자 4명이 취업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③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55세에

66) 예정이율, 예정사망율, 예정승급률 및 탈퇴율과 같은 기업의 데이터는 대외비를 공개되지 않고 있어 대규모계약집단보다는 소규모계약집단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정년퇴직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55세에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연금수급은 정기연금만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연금수령은 연금연액(연초)기준 100만원, 5년 확정연금으로 가정하였고 분석을 위한 예정이율은 4.5%를 적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연금재정의 적정성모델에 기초하여 수리적인 방법을 기초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산운용의 수익률과 보험료수준 등을 비교하지 않고 부채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⁶⁷⁾.

2. 분석결과

가. 기업부담능력

기업이 적정성 평가 분석모델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업의 부담능력이라 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운영에 따른 제반리스크는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여러 모델 중에서 자사의 부담능력 고려시 어떠한 분석모델(재정방식)이 효율적 인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기업은 자금의 여력이 있는 경우 보험료부담이 높은 적정성평가모델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금부담 능력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에 진출하는 금융기관 이와 같은 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금재정의 적정성모델을 선택하도록 컨설팅하여 주고 적합한 연금제도를 설계하여 줄 필요성이 있다. 미국

67) 본 분석은 일정한 가정하에 모델별 특성차이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특성에 맞는 모델이 선택되도록 보험회사가 제시하는데 분석목적이 있었기에, 일정한 데이터를 다양한 적정성 평가모델에 적용하여 기업부담 등의 차이분석을 하고 이들이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적정성평가모델 분석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채측면과 관련된 분석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으며, 자산측면을 함께 고려한 분석, 즉 연금ALM적 차원의 분석(자산배분에 따른 자산운용수익률 고려)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등 선진국에서는 연금계리사가 자율적으로 기업의 특성에 맞는 연금재정의 적정성모형을 선택하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연금재정의 적정성모형별에 따른 마케팅 및 컨설팅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선 기업의 재무부담 측면을 고려, 1인당 부담보험료를 추정한 결과는 대략 다음 <표 V-2>와 같다.

<표 V-2> 기업부담능력 추정 결과

(단위: 원)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모델 IV	모델 V
단기	968,991	833,460	972,005	784,786	901,030
중기	742,827	823,003	972,005	784,786	844,873
증감(순위)	▽226,164	▽10,457	0		▽56,157

- 주: 1. 모델 I 는 도달연령방식, 모델 II 는 가입연령방식, 모델 III 는 폐쇄형 종합보험료방식, 모델 IV 는 개방형 종합보험료방식, 모델 V 는 일시납적증방식 등을 의미
 2. 단기는 2년차, 중기는 5년차를 의미하며, 기업부담능력은 1인당 부담금 금액 추정치를 사용
 3. 모델 III 의 경우 6년 이후부터는 1인당보험료부담이 0이 된다는 점에서 모델 IV 와 차이점 존재

<표 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기에는 모델 III(폐쇄형 종합보험료방식), 모델 I(도달연령방식), 모델 V(일시납적증방식)순으로 1인당 부담보험료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단기와 중기와의 차를 비교하여 볼 때 모델 I(도달연령방식)의 경우가 다른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간이 경과할수록 부담보험료의 증감 폭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할 때 초년도 기업부담이 없는 기업일수록 모델 IV인 폐쇄형 종합보험료방식의 선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부담의 감소폭을 고려할 때에는 모델 I 과 모델 V 의 선택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기업의 재무적 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연금재정의 적정성모델에 관한 컨설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업의 재무적 여건이외에 기업의 리스크부담 능력, 근로자의 집단 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보험자의 속성

다음으로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연금제도를 설계하여 줄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기업에 속해 있는 근로자의 속성, 즉 고연령층이 많은 집단인가, 아니면 저연령층이 많은 집단인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금재정의 적정성평가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고연령층이 많은 기업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제도초기에 고연령층에 의한 부담금비중이 큰 연금재정의 적정성평가모델을 상대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회사 등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근로자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연금제도설계를 기업에게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즉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모델별로 연령이 증대함에 따라, 즉 고연령층이 많고 적음에 따라 나타나는 보험료부담수준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모델별에 따른 연령별 보험료부담수준을 추정한 결과는 <표 V-3>과 같다.

<표 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델 I(도달연령방식)은 모델II(가입연령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의 보험료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연령층이 될수록 부담금의 증대는 모델 I(도달연령방식), 모델II(가입연령방식), 모델III(폐쇄형 종합보험료방식), 모델V(일시납적증방식), 모델IV(개방형 종합보험료방식) 순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연령층의 보험료부담을 감수하면서 도달연령방식을 선택하고자 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기업의 경우 고령층이 많을 때에는 보험료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근로자 연령별 보험료수준을 고려한 컨설팅은 보험회사의 마케팅 전략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표 V-3> 근로자 연령별 부담금 추정결과

(단위: 원)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모델 IV	모델 V
저연령	742,8270		711,249	574,254	659,314
고연령	958,899	789,325	755,767	610,198	700,581
증감(순위)	△216,072	△46,498	△ 44,518	△35,944	△41,267

- 주: 1. 모델 I 는 도달연령방식, 모델 II 는 가입연령방식, 모델 III 는 폐쇄형 종합 보험료방식, 모델 IV 는 개방형 종합보험료방식, 모델 V 는 일시납적증방식임.
2. 저연령과 고연령 차이는 비교분석의 편리성을 위해 1년차를 기준으로 함.

다. 급부비용을 고려한 분석결과

기업의 입장에서 연금재정의 적정성평가모델 선택은, 기업부담능력, 근로자 연령별 부담금 정도 이외에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총부담 수준, 즉 표준비용과 추가비용의 합인 급부비용의 정도를 고려하여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그 이유는 총급부비용의 정도는 기업의 손익구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총부담 수준인 급부비용이 주요 연금재정의 적정성평가모델 선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V-4>는 급부비용의 추정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표 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간이 1년차에서는 모델 I (도달연령방식)이 가장 급부비용이 큰 반면, 모델 V (일시납적증방식)가 가장 급부비용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반해 5년차에서는 모델 II (가입연령방식)이

약 2,139만원으로 급부비용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모델Ⅲ(폐쇄형 종합보험료방식)이 972만원으로 급부비용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는 연금재정의 적정성모델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은 개별기업의 자산운용능력에 따른 수익률 변화에 따라서, 즉 AM(Asset Management)능력(연금자산 배분능력)에 따라 연금재정의 평가모델선택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도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표 V-4> 급부비용 추정결과

(단위: 원)

기간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모델 IV	모델 V
1년	23,539,863	16,941,108	19,440,100	15,695,720	13,186,280
3년	21,167,508	20,655,243	16,524,085	19,619,650	16,482,850
5년	19,313,502	21,398,070	9,720,050	20,404,436	17,142,164

주: 모델 I는 도달연령방식, 모델 II는 가입연령방식, 모델 III는 폐쇄형 종합보험료방식, 모델 IV는 개방형 종합보험료방식, 모델 V는 일시납적증방식 등을 의미

3. 분석상의 한계 및 시사점

먼저 분석상의 한계점으로 ① 연금재정의 적정성모델분석을 부채측면 뿐만 아니라 자산측면을 고려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 즉 자산운용의 포트폴리오변화에 따른 수익률변화를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분석하였다는 점 ② 분석 데이터의 입수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계약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다 보니 대규모계약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 ③ 그리고 일정한 정상상태를 가정하여 분석하였다는 점 ④ 다양한 형태의 기업과 재정방식 등을 적용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상의 한계는 추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통해 실질적 데이터의 입수가 가능하여질 때, 그리고 선진국 처럼 다양한 분석모델의 적용이 법적·제도적으로 가능해질 때 해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반문제가 해결되고 선진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험회사는 개별기업의 특성에 부합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컨설팅차원에서 설계하여 줄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계는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속성,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다양한 퇴직연금 재정설계 모형의 선택, 즉 연금재정의 적정성평가모형의 선택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연금재정의 적정성평가모형의 활용은 연금ALM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연금리스크관리차원에서 연금재정의 적정성평가모형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기업의 부담능력측면에서 볼 때 ① 초년도 기업부담이 없는 기업일 수록 모델Ⅳ인 폐쇄형 종합보험료방식의 선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부담의 감소폭을 고려할 때에는 모델Ⅰ과 모델Ⅴ의 선택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② 고연령층으로 감에 따라 부담금의 증대는 모델Ⅰ(도달연령방식), 모델Ⅱ(가입연령방식), 모델Ⅲ(폐쇄형 종합보험료방식), 모델Ⅴ(일시납적증방식), 모델Ⅳ(개방형 종합보험료방식)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고령층을 고려하는 기업은 도달연령방식보다 오히려 가입연령방식 등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③ 표준비용과 과거근무채무보험료의 합인 급부비용의 정도를 감안한 컨설팅전략이 개별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기업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결정할 때 기업의 재무부담 이외에도 많은 변수를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M&A전략 등), 보험회사의 컨설팅전략이 다변화되고 다원화될 필요성 있다.